

# ‘초이노믹스’ ‘서민증세’ 공방 가열

##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여 “과감한 재정 확대 불가피”

야 “최경환, 총선 불출마해야”

국회의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서민증세’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초이노믹스=새누리당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지출 확대를 포함한 근본 처방이 불가피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둔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해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로 드러났으며 전방위 비판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최 부총리의 첫 규제완화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선 “주택거래는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경제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은 5.7%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다고 하기 어려운데, 과연 이런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충분하느냐”고 추가 재정확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대책들이 진정성을 갖고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박근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연주 의원은 “DTI·LTV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은 실패했다”며 “돈 풀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던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서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증세 논란=새정치연합은 담뱃세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결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국민감세’를 했지만, 아담에 의해 ‘부자감세’로 호도됐다”며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실질적으로 ‘부자는 증세, 서민은 감세’를 했다는 것은 세무당국자들과 과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담뱃세 인상 논란 등에 대해서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며 “담배가격과 주민세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수는 건강, 안전,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은 서민증세가

맞다”며 “담뱃세와 주민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소득 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역진적이다. 그래서 서민증세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낙수효과를 바라며 ‘부자·재벌 소득증대’ 정책을 늘여놓을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더 필요하다”며 세제 문제 검토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韓-濠·캐나다 FTA 관련

## 여·야·정 협의체 구성키로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 합의

여야가 호주·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4지방 중 방위산업 비리 국조에 대해선 “국조에 끌어들이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조를 요구할 만큼 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저희도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됐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관심도 충분히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소위 ‘4지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4지방 중 방위산업 비리 국조에 대해선 “국조에 끌어들이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조를 요구할 만큼 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저희도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됐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관심도 충분히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모든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1채씩 공급”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안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중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보유 한 100조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듯 국민연금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안 처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탈북단체 대표들이 비밀리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더는 정부의 방입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반기문 영입설’...野 차기 대선 지형 미묘한 파장

정대철 “집권 가능성 큰 쪽으로 기우는 것 당연”

일부 의원들 “왜 당 흔드느냐...고건 전철 밟을 것” 불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촉발된 ‘반기문 영입 카드’가 차기 대선 지형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물밑에서 거론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은 지난 3일 권도갑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영입’ 주장을 계기로 실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기문 대선 주자 카드는 비호를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설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대철 상임고문은 4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으로서서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집권 가능성이 큰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인사들이 반도(反黨)신당을 창당하고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한다”며 반도 진영의 물밑 움직임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반기문 사무총장 카드와

맞물린 신당론에 대해 “뉴DJP 연합을 통해서 호남과 충청이 다시 손잡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분열해서 패배로 가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게 김대중 정신”이라며 “분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당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어 “(반 총장 카드가) 크게 임팩트가 없을 것”이라며 “당내에 훌륭한 대통령 후보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잘 준비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갑작스레 부상한 반기문 이슈 제기에 대해 당을 흔드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자기 당에 압도적 후보가 없다고 벌써부터 외부로 눈길 돌리는 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게으른 농부가 참외 농사는 안 가우고 야산에 개똥참외 주우려 다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권주자 진영에서도 반기문 카드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다. 일종의 거품 현상이며 반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다 해도 고건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반 총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정당대회가 계파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거나 계파 나눠먹기 식으로 끝난다면 반기문 카드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NAVER **단비플라워** 농약제거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택외 학개론·임진법·공법·이건법·중개법·중개기·공시법·안규제·세법·임기원

**개강 11월 10일** 주부반 11월~12월 기조강연 1과목 강의 합니다. 성인반 인디언 동영상 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최고의 교수진으로 강의 질이 높은 학원 1위  
● 단종과 신대물 주는 학원 1위  
● 신속하고 정확한 정답과 1명 배움  
●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3명 배출

합격률 1위  
● 기조강연 - 1과 ~ 12과      ● 기법강연 - 5과 ~ 6과  
● 기법강연 - 7과 ~ 8과      ● 기법강연 - 9과 ~ 10과  
● 기법강연 - 11과 ~ 12과      ● 기법강연 - 13과 ~ 14과

광주새롬학원에서 제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 상담사 특강 (주·야)**

· 학원 홈페이지 방문주소 경북·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 학원개방 4층까지 경북·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 본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2층 월요일 ~ 361-8111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쏙쏙!!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소사립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